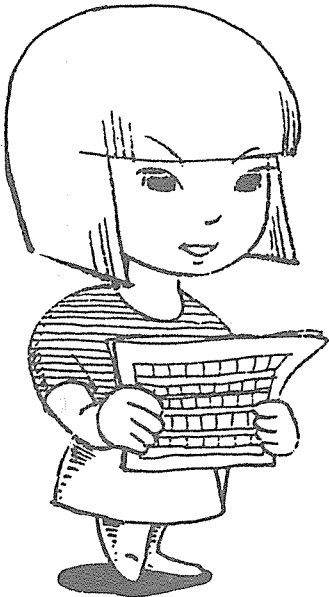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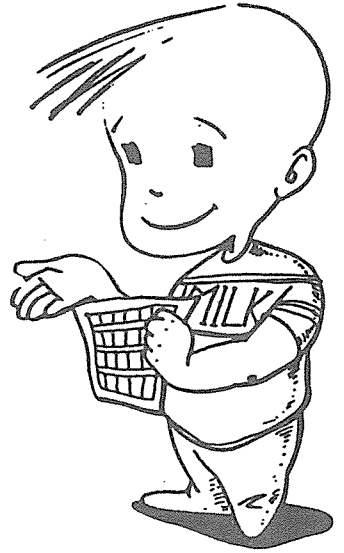


# 제10회 어린이 우유 장학금 글짓기 대회 입상작



한국유가공협회에서는 우유소비촉진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의 글솜씨 향상을 위해 지난 85년부터 매년 “어린이 우유장학금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열번째인 94년도에는 전국에서 총2천4명이 응모, 새싹회(회장 윤석중)에 심사를 의뢰하여 최우수 1명, 금상 2명, 은상 5명, 동상 20명, 장려 50명을 엄선하여 상장과 장학금(장려상은 부상)을 수여했다.

본지는 동상이상 28편을 4회에 나누어 게재한다. 지난호에 이어 이번호에는 동상 8편을 실는다.

동상

# 동생과 우유

방 현 주

(포항제철동국민학교 6-7)

“언니야, 우리 저 우유 아무도 안먹는 것 같은데 우리 먹을까?”

“안돼. 상했을지도 모르잖아.”

동생 현진이와 친구의 생일잔치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조금 좁은 길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은 눈에 별로 띄지 않았다. 문득 발앞에 떨어져 있는 우유 하나가 눈에 보여 현진이와 말다툼을 하게 된 것이다.

우유를 원체 싫어하는 난 주먹크기만한 우유를 들고 “우웻.”이라고 구역질하는 척을 보였다. 하지만 현진인 다르다. 집에 우유가 몇 개라도 있으면 하루도 가지못해 다 먹을만큼 우유를 좋아하는 편이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동생 현진이가 재수가 좋다며 떨어져있는 우유를 얼른 집어 들었다.

“언니야. 우리 이우유 먹자. 응!”

현진이가 자꾸 보쳤다.

난 우유를 뺏어 조금 열고 냄새를 맡아보았다. 약간 상한 것 같기도 해서 땅 바닥에 던져버렸다. 흰 우유가 줄줄 새어 나왔다. 현진이가 소리쳤다.

“언니 미워?”

‘첫! 그까짓 우유 하나 가지고, 또 울게 뭐람!’

난 투덜대며 뒤를 보았다.

어느새 고양이 한 마리가 흐른 우유를 먹고

있었다. 다시 고개를 돌리고 걸어갔다.

‘내가 잘못된 것 일까?’

하는 조금한 마음에 동생 현진이가 약간 측은하게도 여겨졌다. 그래서 그런지 자꾸 울먹이는 현진이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바지 주머니를 뒤졌다. 200원이 있었다. 슈퍼로 달려갔다. 흰 우유를 하나 집어 계산을 할려고 하니 딸기 우유를 좋아하는 현진이가 생각나 바꾸어 들었다. ‘230원.’이란 가격을보고 얼른 돌아섰다.

흰 우유 하나를 들고 집으로 달려왔다.

“현진아 언니가 우유 사 왔어!”

“정말!”

현진이가 뿔 듯이 기뻐하며 내미는 우유를 뜯어 꿀꺽꿀꺽 마셨다.

“우유가 맛있니?”

“응. 얼마나 우유가 맛있대구! 언니도 먹어봐.”

입술을 주먹으로 씹 문지르며 피식 웃었다.

학교에서 우유 급식을 하여 동생에게 갖다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동생이 내 가슴에 안겨왔다. 말썹꾸러기 두 눈이 촉촉히 젖어 있었다.

동상

# 우유 배달

정 원 석

(포항제철동국민학교 6-7)

어머니께서는 우유 배달을 하신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건강을 위하여 어머니께서는 우유 배달을 하신다. 아침

운동으로 좋다는 어머니시다.

“엄마가 몸살이 났구나. 내일 네가 우유 배달을 좀 할 수 없겠니?”

어머니 말씀하시는데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다. 잠을 늦게까지 잘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재미있을 것 같았다.

“네. 어머니께서 다 나오실 때까지 제가 우유 배달을 할게요. 걱정 마시고 빨리 나오세요.”

일찍 잠자리에 누웠다. 그런데 잠이 좀처럼 오지 않았다. 걱정도 되었다.

‘우유 배달하다 친구를 만나면 어찌지?’ 이런 저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따르릉! 따르릉!”

시계 종이 울렸다. 얼른 일어나 머리맡에 준비해둔 옷을 갈아 입고 거실로 나가니 통과 명단이 있었다.

어머니께서는 우유는 빨리 돌려야 한다고 하셨다. 계단을 내려가니 어머니 말씀대로 유모차 같은 곳에 우유가 들어 있었다. 무거웠다. 밖은 캄캄했다.

우리집 가까이 부터 돌리기 시작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날이 밝아 오기 시작하였다. 숨을 몰아쉬면서 가끔 주위를 두리번 거렸다. 막 뛰었다. 아는 아이를 만날까 고개를 숙이고 5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갔다 내려오고하니 등에서 땀이 나고 이마에서는 땀이 흘러내렸다. 그때였다.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닫기는 소리였다. 위로 힐끗 쳐다보니 우리반여학생이었다.

난 밑을 보고 못 본체 부지런히 뛰었다. 머리카락 끝이 쭈긋 서는 것 같았다. 옷은 땀으로 흠뻑 젖어있었다. 한 숨을 몰아 쉬었다. 힘든 것보다 날 알아봐서 친구들한테 알리면 어찌나 하는 생각이 머리 속에 짝 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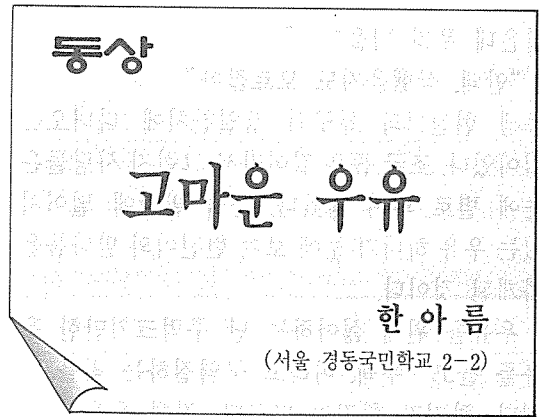
우유가 얼마 남지 않았다. 다 돌리고 돌아서

내려오니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 아침 햇살이 환하게 퍼져 있었다.

어머니에게 짜증내려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다. 내가 어머니 대신 이처럼 힘든 일을 해냈다는 생각에 모처럼 자식의 할 일을 한 것 같았다.

어머니가 몸살이 나오셔도 내가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

우유에 빈통이 든 배달차를 끌면서 집으로 향했다. 발걸음이 가볍기만 하였다.



나는 흰우유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딸기 우유나 초코 우유만 잘 마셨습니다.

1학년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마시는 흰우유를 맛있게 마시기 위해서 네스퀵을 한봉지씩 사가지고 가서 우유에 타서 마셨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나처럼 네스퀵을 가지고 와서 타마시는 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루는 선생님께서

“애들아, 그냥 흰우유 마시는 것이 좋단다. 네스퀵을 타서 마시면 비타민이 파괴되고, 오히려 너희들 손해야, 알았니?”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다같이

“네.”

하고 대답한뒤 학교에서 흰우유를 그냥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없는듯 하더니 차츰 고소하고 시원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집에서 우유를 마실때마다 우리 할머니가 고맙게 느껴집니다. 나는 키가 작고 몸이 약한 편인데, 할머니께서 여러가지 곡식을 섞어서 만든 미숫가루를 우유에 타서 주시며

“우리 아름이가 튼튼하고 잘 커야 이 할머니가 기쁘단다. 물이 마시고 싶을때 마다 우유한컵씩 마시고, 낮에는 할머니가 타 주는 미숫가루우유를 마시면 키도 많이 크고 튼튼해 진단다.”하십니다.

나는 “할머니께서 먼저 잡수셔 보श्य. 맛 있어야 제가 먹지요.”

하면서 할머니께서 한모금이라도 잡수신 뒤에 내가 먹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우리 강아지가 할머니를 생각하고 자꾸 맛 보라고 하지?”

하시면서 좋아하십니다.

나는 1학년때 맨 앞에 앉았는데 지금은 중간에 앉습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오이크듯이 많이 자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웃아줌마는

“아름이 요즈음 뭘 잘먹어서 키가 많이 자랐니?”

하십니다. 나는

“우유 미숫가루요.” 합니다.

고마운 우유때문에 내몸이 쑥쑥 자라고, 나는 마실때도

“할머니 한번 마셔봐요. 맛이 있나없나요?” 하면 할머니께서는 많이 마시는 홍내를 내시며 마시고 얼른 주십니다.

우리어머니는 못마땅한 모습으로 쳐다보지만 나는 매일 우유에다 미숫가루를 타주시는 할머니가 좋습니다.

나는 부지런히 공부하여서 부모님한테도 할머니한테도 효도를 할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우유 한개씩 따로 따로 사다드릴 계획입니다.

등상

## 나의 건강과우유

김민정

(대전 외동국민학교 4-4)

“엄마, 학교에 다녀 왔습니다.”

가방을 책상위에 휙 던져놓고 곧바로 미술학원 가방을 챙겨들었다.

“너, 우유 먹었니?”

“지금 먹을게요.”

학교에서 급식으로 주는 우유때문에 엄마와 하는 이야기이다.

내가 우유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먹지 않고 가지고 오기때문에 매일 벌어지는 일이다. 우유를 먹고 난 후에 입에서 냄새도 나는것 같고 텅텅한것 같아서 좋아하지 않는다. 우유 때문이라면 엄마와 이야기 하지 않으려고 재빨리 학원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그림을 그리면서도 별로 마음이편하지 않았다. 혹시 엄마께서 가방을 열어 보시고 먹지 않은 우유가 나오면

“그러니까 키가 크지 않지?”

하시며 화를 내시는 모습이 생각났다. 키라면 나도 고민이 많은데 엄마께서꼭 우유에 빗대어 말씀 하실때 마다 속이 상해서 죽을 지경이다. 그림을 그릴때가 제일 즐겁지만 그날은 얼렁 뚱뚱하고 집으로 돌아 왔다.

“민정아, 우유 안먹었으면 냉장고에라도 넣어 놓으렴.” 웬일일까? 오늘은 무슨 기분좋은 일이 있으실까? 부드러운 엄마의 목소리에 가우뚱하며 책가방을 여는 순간 기절할뻔했다. 우유가 터져서 책과 범벅이 되어 엉망이었다.

엄마는 갑자기 호랑이 같은 표정을 지으시고 바라보셨다. 나는 아무말도 할수가 없었다. 가방을 책상위에 확 던져놓을때 터져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후회가 되었지만 당장 가방은 어떻게 하고 책장이 서로 철커덕 붙어버린것은 어떻게 할까 울고 싶었다. 다행히 책은 드라이로 말렸지만 우글쭈글 엉망이었다.

다음날 책가방이 마르지 않아서 학원가방에 책을 챙겨서 학교에 갔다. 손에 들고 가니까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손이 빨갛게 부러트고 굵은 줄도 생겼다. 그래도 엄마께는 손이 아팠었다는 말을 못했다. 나는 꼼꼼히 생각해 보았다.

‘김민정, 너는 소띠이고 엄마젖은 조금 밖에 못먹고 우유를 먹고 자랐다면 왜 우유를 싫어하니?어서 우유와 친해 보지 않을까?’

이렇게 결심하고 엄마께 코코아를 사달라고 해서 매일 조금씩 덜어 가지고 학교에 갔다. 우유를 먹을 때 타서 먹기위해서였다. 처음엔 코코아 맛으로 먹었는데 달콤하고 맛있었다.

그런던 어느날 코코아를 조금씩섞어도 우유가 맛있다는 것을 알았다. 고소한 우유의 맛을 나는 왜 몰랐을까? 참 고소하고 맛있었다.

그러고 보니 키도 쑥 큰것 같았다. 그런 다음부터 우리집 냉장고에는 1000ml짜리 우유가 항상 나를 기다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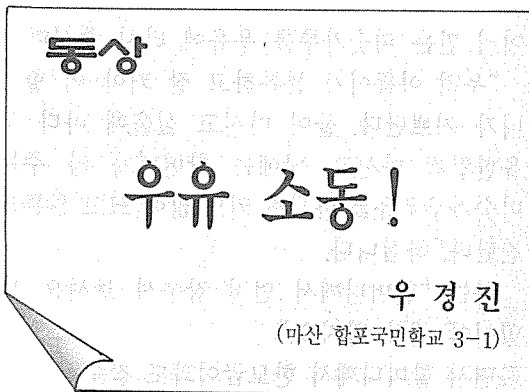
어제는 날씨가 추워져서 지난 봄에 입었던 청바지를 꺼내어서 입어 보았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많이 클수가? 할정도로 쑥 올라갔다. 엄마도 깜짝놀라셨다.

“우리 민정이가 올 여름동안 많이 컸네. 옷을 새로 사야겠어.”

하셨다. 우유 덕분에 내키도 쑥크고 새옷도 장만하고 나는 너무나너무나 행복했다.

‘이렇게 기분좋은 일을 우리반 꼬마친구 선미에게도 말해주고 비결을 가르쳐 주어야겠어.’

그러면 선미도 나처럼 몰라 보게 키가 클꺼야.’ 선미에게 나의 건강과 우유의 비결을 알려 주려고 내일이 빨리오기를 기다리며 잠자리에 들었다.



“누나야, 내 우유”

매일 한통씩 우리집에 들어오는 우유는 내가 그것을 먹으려고 하지만, 동작빠른 동생이 먼저 우유를 차지한다.

그러면, 동생은 나에게 와서,

“누나, 이 우유좀 떼어 줘! 응”

하고 말하면 나는

“싫어”

라고 말하는 때가 많다.

내가 그렇게 화를 내면, 동생은 울면서 어머니께 일러바치곤 한다. 어느날은 집에 우유가와 있자,

나와 동생이 함께 뛰어들어,

“이 우유 내꺼야!”

“아니야, 내꺼야!”

하면서, 우유를 계속 당겼다. 우리가 우유를 당길때, 나는 우유가 아파하는 것 같아서 동생에게 양보하고 말았다. 내가 양보하면 동생은

“누나, 미안.이 우유 우리 함께 나누어 먹자.”라고 나에게 사과를 한다.

나는 동생의 그런 모습이 참으로 귀엽고 착하게 보인다. 내가 우유를 반쯤먹었을 때,  
“누나! 그만 좀 먹어! 나도 먹어야지.”  
라고 동생이 화를 낸다. 그러면 나는 아무말 없이, 우유를 주고 만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요즘처럼 우유가 1개씩 왔어도 냉장고 안에는 항상 우유가 다섯개 정도는 있었는데, 동생이 조금 커 오니까 우유가 바닥이 난다. 내동생은 우유를 잘 마시고, 또 좋아하니까 피부도 보송보송 하얗고 나와는 반대로 통통하고 말도 통통하게 참 예쁘게 한다.

하지만 나는 어려서부터 우유를 싫어 하여서인지 동생처럼 보송보송 하얗기는 커녕, 무더운 여름만 되면 새까맣게 타 버린다.

그리고 휴일만 되면 아버지께서 딸기맛 우유, 초코맛 우유를 사 주신다. 이상하게도 나는 맛이 나는 우유는 잘 먹는데 맛이 나지 않는 흰 우유는 싫어하는 걸까?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우유를 먹어서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건강한 누나가 되고 동생에게 지지않고, 양보하는 누나가 되고 싶다.

우리집에 우유가 두통씩 들어오면 좋을텐데…….

어머니께서는 왜 우유를 한통씩만 받으실까?

우유를 많이 마시는 동생은 아직 어린데도 우유가 젖소의 몸에서 나고 공장을 거쳐서 우리집에 들어온다는 사실까지 알고있다.

우유 먹보라서 그런지 내동생은 우유 박사다!

내동생은 가끔씩 우유를 마시고 나면 빈 우유팩으로 만들기를 하자고 한다. 나는 동생이 왜 만들기를 하자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의 생각으로는 아마 먹고 남은 우유팩이 아까워서 재활용으로 다시 쓸모있게 하려고 만들기를

하자고 하는 것 같다. 그런가하면, 지난 주에는 나와 동생이 빈 우유팩과 빈요구르트 병으로 저금통을 만들었다. 그 속에 몇 원이 들었는데, 동생은 요즘 그 속에 돈을 넣지않는다. 그리고 받은 돈으로는 몸에 해로운 과자를 사 먹곤 한다.

나는 그런 동생에게

“그것은 몸에 해로운 것이니, 우리 몸에 건강한 우유를 먹어 보렴!”

이라고 말해 주고는 싶지만, 동생이 우유를 많이먹고 힘이 세어져서 나에게

“싫어!”

라고 말할까봐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있다.

동생만 그럴까 아니라 나도 몸에 건강한 우유를 마셔야 겠다. 나는 학교 급식으로도 우유를 먹으니까 어머니께서는 집에 한통씩 들어오는 우유는 동생에게 양보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다. 그렇지만 나는 요즘, 우유가 우리 몸에 건강하다는 것을 알고난 후부터 몸에 건강한 것은 뺏기기 싫어졌다.

우유는 머리도 좋아진다고 한다. 그래서 내 동생은 워낙 머리가 좋은 모양이다. 그래서인지 큰 고모께서는 동생보고

“참, 잘하구나.”

라고 말씀하신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그런 말을 들은 동생은 나에게 와서 자랑을 털어놓는다.

그러면 나는 더듬거리면서

“참 좋겠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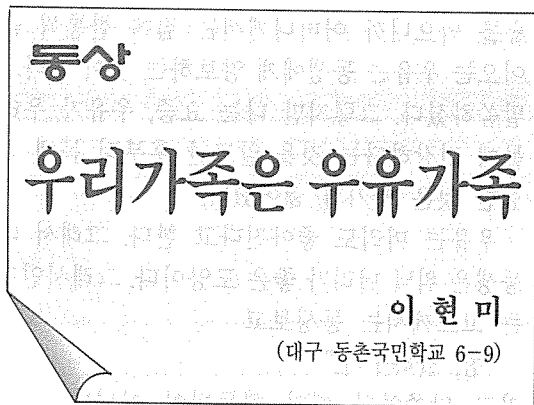
라고 말한다.

내동생의 별명이 ‘우유먹보’인 것처럼 나에게도 그런 별명이 하나있다. 무엇이냐면 ‘우유’라는 것이다.

나에게 왜 이런 우유라는 별명이 붙었냐면 나의 성은 ‘우’씨기 때문에 아이들이 ‘우’자로 들어가는 우유를 별명으로 지어 주었다.

아이들은 가끔씩 이 별명으로 놀릴 때도 있지만, 나는 그리 실망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유는 건강한 음식물이기 때문에 나는 그 소리를 “건강한 사람”이라고 듣기 때문에 나는 나에게 이런 우유라는 별명이 붙은게 참 잘되었다고 생각한다.

비록 우유는 두통씩 받지 못해서 내양껏 먹을 수는 없어도 내동생과 서로 정을 통하면서 먹을 수 있으니까 참 좋다. 내동생은 지금 자면서도 입을 오물거리면서 무엇을 먹고 있는데, 아마 꿈속에서도 우유를 맛있게 먹는 모양이다. 꿈속에서도 누나하고 나눠 먹는지 모르겠다. 내 일도 학교 갔다오면 내 사랑하는 우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



“음 매, 음매.”

내가 9살때 수원 외갓집과 한집에 살면서 젖소를 키웠었다. 15마리의 젖소를 키워서 우유를 생산하느라고 우리가족 모두가 열심히 일하였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께서도 따로 젖소를 20마리정도 키우셨다.

우리 젖소 중, 성격이 난폭한 젖소 한마리가 있었다. 주인은 굉장히 잘 따랐지만, 낯선 사람을 보면 투우할때의 검은 소보다 더 무섭게 덤볐다.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고 그 젖소에서 짜낸 우유를 꼭 먹어 보리라고 결심을 했었지

만, 실패하고 말았었다.

“음매,음매.”

“젖소들이 배고픈 가봐, 도연아 우리젖소한테 풀 먹여주자.”

“그래.”

젖소들이 울어대면 풀을 뜯어서 먹여주곤 했다. 그래야지만 맛있는 우유를 생산해내고 그 우유를 우리가 실컷 먹을수 있으리라는 뜻에서였다.

“우와, 잘먹는다. 어휴, 냄새. 저 젖소는 응가 하잖아.”

“하하하, 웃긴다. 꼬리를 들고 응가 하잖아.” 친구 도연이가 한수 거들었다.

그 무렵 어머니께서 일륜차를 가지고 오셔서 젖소의 오물을 퍼서 일륜차에 담아서논과 밭의 거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운반하고 계셨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녁이 가까워 오자, 우유를 짜기 시작하셨다. 도연이와 나는 신기하다면서 우유짜는 모습을 유심히 살펴 보았다. 다짜 우유를 길쭉한 통에 담으셨다.

“아빠, 오늘도 우유 갖다주러 갈꺼예요?”

“그래, 같이 갈래?”

“응, 좋아, 좋아.”

도연이는 도연이엄마가 와서 데려가고 난 아버지를 따라 집유소에 우유를 갖다주러 갔다. 조금 떨어진 집유소에 트럭을 타고 가서 우유를 주니 아저씨께서,

“우유가 좋고, 지방율이 높으네요!”

하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우유의 평가를 받고서 보름에 한번씩 돈을 받아왔다.

다음날에는 젖소에게 풀과 사료를 주고 물도 주었다. 그리고 학교에 갔다 와서 젖소에게 갔다.

“젖소야, 이 풀들을 먹고 우유 많이 줘.”

하고 말하니, 젖소가 내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음매.”

하고 울어댔다.

오늘도 여전히 어머니께서 일륜차를 가지고 젓소의 오물을 퍼내고 계실때, 뒷쪽 동네에 사는 큰오빠가 도와준다면서 외양간 안으로 들어오자 난폭한 젓소가,

“음매.”  
하며 뺨을 치켜 세우고 막 달려들었다.  
큰오빠는 도망치다가 재빨리 외양간에서 나와 겨우 살았다.

큰오빠는 그 후로 우리 외양간 주위에만 와도 그 난폭한 젓소 때문에 몸을 떨거었다.

“어휴, 현미야. 너희 우유는 절대로 안먹을래.”

“왜, 오빠?”  
“그 젓소처럼 난폭해질까봐.”  
“우유하고 난폭한것이 무슨관계인데?”  
“어휴, 어쨌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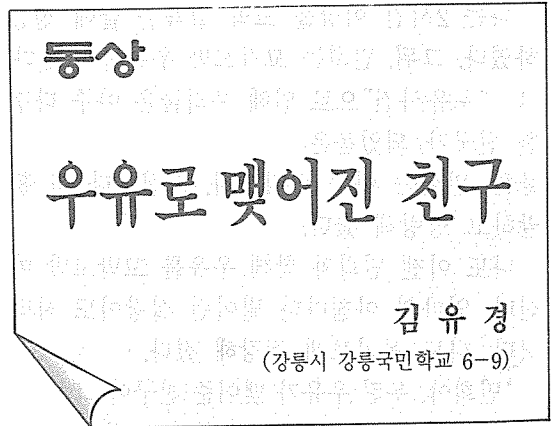
큰오빠는 어린 나의 물음이 답답했는지 말을 잊지 못했다. 그 보다 내가부러워하고 있는것은 외할아버지댁의 젓소다. 우리 젓소들 보다 훨씬 많은 우유를 생산하기 때문이었다.

‘젓소야, 우유 많이 주라, 응?’  
그러나 젓소들은 더 많은 우유를 생산하지 못했다. 어쩌다 새끼를 놓으면 우유를 더 많이 생산 하곤 할 때도 있었다. 아마 목부들이 이렇게 열심히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도회지의 아이들은 알까?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 젓소를 키웠었고 내가 10살이 되어서는 젓소를 팔고 대구로 이사를 왔다. 대구에 이사를 와서 우리가족이 우유를 좋아해서 동네에서 소문난 우유가족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우유를 더 가까이 하고 있다. 앞으로 건강에 좋은 또, 여러 사람의 정성이 담긴 우유를 잘 먹어야겠다.

‘우리가족은 우유가족!’



“엄마, 정말 안 먹을래요.”  
“먹을수록 좋은거야. 어서.”  
“싫은데??”

아침마다 엄마와 내가 벌이는 실랑이다.

오늘 아침도 어김없이 엄마와 실랑이를 벌이는 것이다. 늘 아침마다 우유 한 컵을 먹이려고 하시는 엄마와, 안먹겠다고 떼쓰는 나.

하지만 할수없이 먹기싫은 우유를 한컵이나 꿀꺽꿀꺽 먹어야 한다. 우유를 마시고 학교에 가니, 친구들이 나를 반겨준다.

“유경아, 안녕?”  
“안녕?”

우리학교는 둘째시간이 끝나고 우유를 한개씩 마신다.

오늘도 나는 우유를 가방에 집어넣는다. 그때 슬그머니 교실을 나가는 민희.

민희는 아빠와 엄마가 모두 돌아가시고 할머니와 단 둘이서만 산다. 집안형편이 어려워 늘 둘째시간이 끝나면 교실을 나갔다가, 3교시 시작종이 울리면 슬그머니 들어 오곤 한다. 그다음 날, 그다음날도 민희는 교실을나갔다.

나는 이사실을 엄마께 말씀드리자, 엄마는 혀를 차시며 민희의 우유값을 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민희에게 이야기 하자 민희는 싫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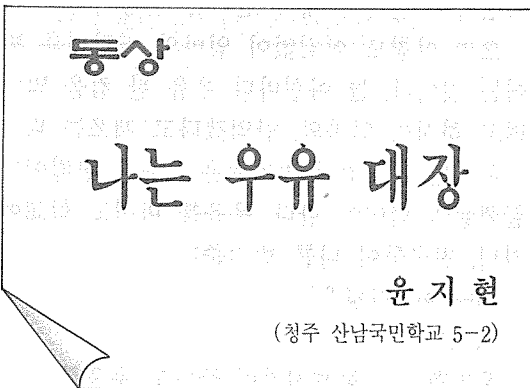
나는 2시간 이상을 꼬박 설득한 끝에 성공하였다. 그 뒤, 민희는 꼬박꼬박 우유를 마셨다. 그 “우유사건”으로 인해 우리들은 아주 다정한 친구가 되었음은

물론, 민희는 아주 달라졌다. 그전보다 더 활발하고 명랑해 졌다.

나도 이젠 민희와 함께 우유를 꼬박꼬박 마신다. 엄마와 아침마다 벌이던 실랑이도 사라졌다. 나도 몰라보게 건강해 졌다.

‘민희야. 우린 우유가 맺어준 친구야 그치?’ 민희는 성실한 어린이로 표창장도 받았다.

늘 아침마다 자기가 밥을 해먹고 오는 것이다. 난 민희가 자랑스럽다. 오늘도 우리는 우유 빨리먹기 경쟁을 한다.



“엄마! 아직 멀었어요?”

“이제 다 되었다.”

짐을 대강 챙기고는 아침 일찍 친척 오빠들과 매편에 사시는 고모댁에 놀러갔다. 이번 여름 방학 때 목장을 경영하고 계시는 고모댁에 놀러가기로 몇달 전부터 계획했던 것이기 때문에 잔뜩 기대가 됐다. 고모댁에 도착하자마자 고모께서는 우유를 주셨다.

슈퍼에서 파는 서울 우유, 서주 우유 같은

것은 싱거웠는데 이 목장의 우유는 달기도 하고 참 맛이 있었다. 나는 그 날 하루 종일 젓소와 대화를 하였다.

“젓소야, 내가 참 나쁜 아이라고 생각 하지? 내가 수고 해서 만든 우유를 나는 쉽게 먹어 치우니 말이야.”

하며 나도 모르게 젓소에게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저녁이 되었다는 듯이 하늘도 붉게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나는 방에 들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고모께서는

“우리 둘 중에 누가 우유를 더 잘 먹는지 시험 할래?”

“그래요! 고모”

컵 안에는 우유가 가득 담겨 있었다.

“준비, 시작!”

하는 소리와 함께 나는 정신없이 먹기 시작했다. 그런데 고모께서는 자연스럽게 드시고 계셨다. 드디어 나는 우유를 모두 마셨다.

내가 1등을 한 줄 알고 기뻐했는데 고모께서는 벌써 다 드시고 나를 기다리셨던 것 같았다. 오늘은 졌지만 연습을 많이 해서 다음 번에는 내가 꼭 이겨야겠다고 생각 했다.

내 눈앞에는 달콤한 우유가 아른거렸다. 나는 부엌으로 가보았다. 냉장고 안에는 우유가 가득 채워져 있었다. 거기에서 받은 모두 마셨다. 마시고 나서는 바로 잠이 들었다. 잠에서 깨어보니 웬지 모르게 축축한 느낌을 받아 나는 혹시나 해서 이불을 걷어 불히고는 요를 보니 그 곳에는 작은 웅덩이 한 개가 그려 있었다. 이 사실을 고모께서 아시게 되면 야단을 치실 것 같았다. 나는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밖에 되지 않았다. 나는 요를 들고 수돗가로 갔다. 빨래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빨래를 해보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빨래를 하기사작했다. 오늘 내가 오줌을  
싼 것은 어제 밤에 우유를 많이 먹고 자서 그런  
것 같았다. 요가 얇아서 다행이지 요가 두꺼  
웠으면 모두 들통이 날 뻔 했다.

나는 대강 요를 빨고 나서 들통이 날 것 같아  
방안에 다 널고 나니 시계는 6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너무 졸려 잠이 들고 말았다. 시  
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깨어보니 오빠들이 다  
알아차리고서는 막 웃고 있었다. 큰오빠가 이  
렇게 말했다.

“지현이가 몇 살 이더라? 3살인가 12살인  
가? 아! 아니지 12살이 오줌을 쌀 리는 없고  
3살 인가보다!”

하며 놀려 댔다. 나는 자신 까지도 원망스러  
웠다. 나는 오빠들을 밖으로 밀어 붙치고는  
나혼자 방구석에 앉아 있다가 불현 듯 무슨  
일이라도 있는 듯 고모께 우유 한 잔을 부탁  
했다.

그때 마침 아까 웅덩이를 그려 놓았던 그  
요를 빨래줄 위에 널고 계시던 고모께서는

“딱 한 잔 만이다.”

하시며 우유에 설탕을 타서 내게로 주시고는  
목장으로 일하러 나가셨다. 나는 너무나 맛있  
어서 나도 모르게 오늘 아침에 고모부께서 짜  
놓은 우유를 몽땅 먹어 치웠다. 그것을 안 고  
모께서는 이렇게 주의를 주셨다.

“지현아, 우유를 어른은 하루에 2컵, 어린이는  
3컵을 먹어야 영양분을 잘 흡수할 있어. 그런데  
지현이는 하루에 보통 몇 컵을 먹지?”

“아홉컵이요.”

“거 봐! 너는 지금 쓸데없이 너무 많이먹고  
있어. 오늘부터 집에 가서는 아침에 1컵, 점심에  
1컵 저녁에 1컵씩만 마시도록해요. 알았지, 지  
현아?”

“네.”

나는 명심했다는 듯이 대답했다. 그러고는 방

으로 들어 갔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오빠들이 나의  
일기장을 훑쳐 보고 있었다. 너무도 화가 나서  
내 주먹으로 오빠의 배를 뺑하고 쳤다. 오빠는  
더욱 약을 올리며

“힘도 세지 않는 주제에…”

그러면서 말을 계속 이었다.

“너는 무슨애가 하룻동안 있었던 일이 우유  
먹었던 일밖에 없니? 이 우유 귀신아!”

“그거야 내 맘이지 뭐.”

하고는 목장으로 뛰쳐 나갔다. 젖소들은 내가  
왔는데도 모르는 척하는 것 같았다. 젖소들은  
젖소들의 쉼터에서 기분 좋게 낮잠을 자고 있  
었다. 괜히 젖소들이 얄미웠다. 아까의 일을  
생각해보니 나의 하루 생활이 우유 이야기로  
끝난다니 내가 생각을 해보아도 정말 한심한  
일이었다.

이제 집에 갈 날은 이틀 밖에 남지 않았다.  
몇 일이 지나고 집에 갈 날이 왔다. 고모께서는  
집에 갈 때 우유를 굉장히 많이 싸주셨다. 그  
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유 대장님, 이 우유 많이 드시고 건강하  
세요.”

나는

“네”

하고 씩씩하게 대답했다. 고모께 감사드리고  
집으로 돌아 왔다. 집에 도착 하자마자 고모께  
하신 말씀을 흥내내어

“엄마, 우유 대장님이 오셨는데 우유 대장  
어머니가 반기시지도 않으세요?”

하고 말하였다. 나는 그 때부터 우유 대장이란  
별명이 붙게 되었다.